

직장인 87.7% “5인 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여론조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우선 확대해야”
 “주 52시간제” ‘공휴일 유급휴일’도 필요”

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87.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으

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34.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주 최대 52시간제’가 31.9%로 2위였고, 그의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등의 응답 순이었다.

한편 당사자인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169명)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직장갑질 119는 “더 길게 일하더라도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적게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라며 “하루라도 빨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5인 미만 사회적 기업 정규직’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는 “회사가 힘들다며, 대표가 갑자기 주 5일 근무를 주 3일 근무로 바꿔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강요하고 있다. 싫으면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자진 퇴사로 나가거나 근무 태만, 업무수행 부족으로 징계해고를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보자도 “개인병원인데, 평일 로테이션 근무로 1인당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 원장님은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했고, 연차는 오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한다”고 전했다.

한 제보자는 “(상사가 내게 한 발언의)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니 반말, 소리 지르고 부당한 지시, 거짓말로 협박, 비하 발언이 가득하다”며 “손으로 제 어깨를 밀치거나 몸으로 밀고 가거나 도구를 사용해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상담을 받았다”고 했다.

이 같은 노동자들의 상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

실”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다.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월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서선욱기자



부산 해운대 앞바다 곡예 질주 수상오토바이들
 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 무리가 질주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진 14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앞

희귀식물 왕다람쥐꼬리, 서식지 전수조사

다람쥐 꼬리처럼 생긴 희귀 양치식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시민과 함께 희귀식물인 왕다람쥐꼬리의 서식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14일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왕다람쥐꼬리는 숲 속의 나무나 바위·너덜지대에 서식하는 희귀식물이다. 생김새가 다람쥐의 꼬리처럼 생겨서 이름 붙여진 양치식물이다.

왕다람쥐꼬리는 전남·제주 등 한반도 남부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일부 구역에서도 서식지가 확인됐다.

공원사무소는 시민 식물조사단과 함께 공원 내 왕다람쥐꼬리의 서식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식물조사단 모집 대상은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또는 졸업생, 관련 분야 종사자 등 식물 조사 경험이 있는 식물 분야 전문가다. 24일까지 20명이 모집될 예정이다. 선정된 식물조사단은 11월까지 8개월간 활동한다.

김도웅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무등산의 자생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과학 프로그램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등산국립공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김수권기자

“지방 교대, 의대처럼 ‘지역인재’ 확대…합격선·경쟁률 낮아”

중로학원 “교대 정원 감축에도 37% 수준 유지할 듯”

비수도권 교육대학교와 초등교육과 10곳이 의과대학처럼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높여 전체 모집인원 40%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들 대학이 초등교사 ‘임용대란’과 학생 수 감소로 13년 만에 입학정원 감축에 나섰지만 지역인재 전형의 합격선과 경쟁률은 수도권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중로학원이 비수도권 교대 8개교와 한국교원대·제주대 초등교육과 총 10개교의 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 전형은 전체 수시·정시 정원 내 모집정원의 37.1%를 차지했다.

지역인재 전형은 비수도권 대학이 있는 권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3년 동안 다닌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인기 높은 의약학계열은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규제가 걸려 있지만 교대는 의무가 아니다.

지방권 교대와 초등교육과 10개교의 총 모집정원 2870명 중 1066명이 지역인재 전형이며 모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위주로 평가하는 수시에서 선발한다.

이들 10개교의 원래 입학정원은 2855명이나, 교육부 고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따라 2년 전 입시에서 못 뽑은 15명이 늘었다.

그런데도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비중이 전

년도 입시의 33.8%(2855명 중 966명)보다 3.3%포인트(p) 높아졌다.

광주교대가 48.8%로 비중이 가장 높고 대구 교대 46.8%, 전주교대 40.1% 등 총 3개교가 대법정 비율(40%)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들 대학은 오는 5월까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12%씩 줄여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정정해야 하는 만큼, 규모는 감소할 예정이고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임성호 중로학원 대표는 “교대의 모집정원이 감축돼 새로운 대입 전형계획이 발표돼야 하지만 지역인재 비율은 당초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인재 전형은 수험생의 출신 지역 제한이 걸려 있어 지역과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대입 전형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률과 합격선도 낮게 형성돼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포털 ‘대학어디가’ 따르면 2023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지역 교대와 초등교육과 3곳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균 합격선(70% 컷)은 내신 1.6등급이고, 교과전형도 이와 같다.

비수도권 교대 등 10곳의 합격선은 전국 선발 전형이 학종 내신 2.1등급, 교과 2.3등급이다.

반면 지역인재 선발은 학종 2.4등급, 교과 2.8등급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비수도권 교대 등의 수시 전국 선발

전형 경쟁률은 8.61대 1이었지만 지역인재는 3.42대 1이었다. 이번 입시에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이다.

이번 입시에선 교대 등의 정원이 줄어들며 따라 입시 경쟁률이 최대 10대 1까지 상승하고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도 4대 1까지 이를 것으로 학원 측은 내다봤다.

다만 교원 추락에 따른 선호도 감소와 임용시험 합격률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종 합격선(컷트라인)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됐다.

이와 함께 임 대표는 “교대 등의 모집정원 감축에 따라 수시 미충원에 따른 이월 인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입생 중도 탈락 규모도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교대와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는 국립 한국교원대, 제주대 등 총 12개교와 협의 후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지금보다 12% 줄이기로 했다. 사립대인 이화여대는 규모가 적은 점을 고려해 자율에 맡겼다.

이에 따라 교대 등 초등교사 양성기관 13개교의 총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13년 만에 3847명에서 339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9일까지 각 교대 등으로부터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 받아 이달 23일까지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이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정하고 심의를 받은 뒤 5월말 입시요강을 발표한다.

뉴스스

참사 10주기 앞둔 팽목항, 통곡은 처연함이 되어

세월호 참사 10주기 코앞…전국서 추모 발길

“떡떡하다는 말 밖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13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

비탄과 통곡이 오래 전 떠나간 빈자리를 바닷바람이 몰고 온 잔잔한 파도소리가 메웠다.

추모 분위기가 절정에 다다르면서 추모객들의 발소리가 늘었지만, 이날도 팽목항에서는 어느 누구도 말끝을 쉽게 잇지 못했다. 추모객들은 턱 끝까지 차오르는 떡떡함에서 비롯된 한숨만 깊게 내뿜어 힐 뿐이었다.

부모의 손을 꼭 잡고 팽목항 방파제를 건넌 한 여자가 아이는 주머니에서 노란 천 조각을 꺼내더니 철제 봉 주변으로 향했다.

고사리 손에 쥐어진 노란 천 조각은 여러 차례 서툰 매듭 끝에 어느새 어엿한 리본이 됐다.

아이로부터 리본을 건네받은 아버지는 말없이 철봉에 리본을 묶은 뒤 아이를 업고 방파제를 걷고 또 걸었다.

상복처럼 검정 옷을 차려 입은 한 추모객도 맹골수도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떨쳤다.

2014년 4월 16일을 되새기고자 이곳을

찾은 추모객들에게 녹색색 바다는 무슨 일 있었느냐는 듯 말없이 일렁일 뿐이었다.

팽목항 주변 팽목기억관에서는 단체 견학을 온 학생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또래 나이 때 변을 당한 희생자들을 떠올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깊은 한숨이 이어졌다.

노란 리본에 ‘잊지 않겠습니다’ 등 글귀를 적은 학생들은 저마다의 팔뚝에 이를 묶고 팽목항으로 걷고 또 걸었다.

10년 전 이곳이 참사 희생자와 가족 사이 마지막 이별 장소였다는 흔적은 얼마 남지 않았다.

새빨간 등대와 방파제를 따라 늘어선 ‘진상규명’ 뜻을 담은 노란 깃발, 노란 리본 조형물만이 비극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남았다.

방파제 바로 옆에는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터미널이 새로 들어서면서 이곳은 더 이상 추모객들만 찾는 공간이 아니게 됐다.

점점 ‘사람 냄새나는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10년 전 절제 드리운 비탄의 그림자는 처연함으로 변해 쉽게 걷어낼 수 없게

됐다.

세월호 선체가 거처된 목포시항 추모공간에서도 추모 분위기는 이어졌다.

선수 부분에 써진 빛바랜 ‘세월(SEWOL)’ 글자만이 한때 이 배가 세월호였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선체를 처음 보는 추모객들은 크기에 놀라고 처참하게 녹슨 모습에 안쓰러워 했다.

추모공간 입구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희생자 304명의 영정 사진을 훑어주려 바라봤다.

두 눈에 희생자들의 얼굴을 아로새기던 그는 이윽고 눈을 질끈 감고 빠른 걸음으로 추모 공간을 빠져나왔다.

추모객들은 이루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떡떡함에 감히 말을 꺼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떡떡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덧붙였다.

대전에서 온 신소연(35·여)씨는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 복잡하다. 처음 오는 팽목항 분위기에 압도돼 거대한 슬픔에 짓눌리는 기분”이라며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기에 슬픔이 배가 되는 것 같다. 멈춘 진상규명 시계가 다시 돌아야 할 때”라고 했다.

진도=조상용기자